

최양업 신부님의 영성과 삶을 내면화하는 교구 공동체의 해

길 위의 사도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⑥

우리는 아직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아직도 낙담하지 않으며,
여전히 하느님의 자비를 바라고,
하느님의 전능하시고
지극히 선하신 섭리에
온전히 의지하고 있습니다.

- 최양업 신부님의 다섯번째 서한 중에서 -

군산 신시도 체류지 (1)

2013년 11월 30일, 전주교구에서는 군산 신시도에 '최양업 토마스 신부 난파 체류지'라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이와 관련된 학술 발표회를 군산시립도서관에서 개최하였다. 최양업 부제가 귀국길을 탐색하기 위해 조선 해안까지 왔다가 한 달동안 머문 장소가 바로 신시도, 즉 예전의 고군산진 신치도였기 때문이다.

1847년 7월 30일, 최양업 부제는 스승 메스트르 신부와 함께 중국의 광주 입구에 정박해 있던 프랑스 군함에 올랐다. 조선으로 귀국하기 위해서였다. 1842년에 처음으로 고국의 문을 두드렸는데, 벌써 네 번째가 되었다. 출항 이후 순조롭게 항해를 계속하던 프랑스 군함 두 척은 조선 해안에 도착한 뒤 갈팡질팡하기 시작하였다. 섬과 갯벌이 많은 데다가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한 것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탓이다. 그러다가 군함 두 척이 모두 신시도 해양에서 좌초하고 말았으니, 그날이 8월 10일(음력 6월 30일)이었다. 이틀 뒤 최양업 부제는 스승 메스트르 신부와 함께 프랑스 해군들을 따라 인근에 있는 섬에 상륙하였다. 기록에 나오는 '고군산진 신치도의 남쪽 모래사장,' 즉 지금의 새만금 33센터 북서쪽 바다가 정확히 그곳이다.

「땀의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그 길을 따라 걷다」 © 천주교 청주교구, 2025

제 1 독 시

이사 6,1-2 7,3-8

회 답 송

◎ 주님,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제 2 독 시

1코린 15,1-11

복 음 환 호 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

복 음

루카 5,1-11

영 성 제 송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배푸신 그 기적을.

그분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네.

“깊은 데로 나아가라”



이준연
사도 요한 신부
청주성모병원 병원장

“물고기를 많이 잡는 방법이 뭐까?”

“Chat GPT에게 물어봐”

요즘 AI(Artificial Intelligence)가 만능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하느님보다 우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깊은 곳은 희망과 기회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험이 따르며 사고가 나면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어부는 어디에서 물고기가 많이 나오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의 운명을 바꿀 선택이 시작됩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뜻을 따를 것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고민하고 망설였을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스승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루카 5,5)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릅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병원 경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깊은 데로 나아가라’라는 주님 말씀을 자주 묵상하게 됩니다. 특히 수련 병원으로서 전공의 파업 등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

주님의 초대는 큰 위안이 됩니다. 건강과 생명을 증진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에 봉사하는 일입니다. 생명은 우리가 하는 모든 가치가 의미 있게 실현되기 위한 근본 가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아 있음의 의미를 전적으로 ‘효율성’과 ‘성과’에 따라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병들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될 때 삶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효율성의 잣대로 평가할 수 없으며, 존재 자체로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하는 귀한 존재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는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모든 환자가 하느님의 소명에 응답하며 마지막까지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서는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깊은 데로 나아가라’라고 초대하십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고통과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인공지능(AI), 심지어 점술이나 주술적인 것에 의지하기보다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실천하십시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확신하며 가정에 신앙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내 마음의 성경
한구절



‘겐네사렛 호수의 예수님’, 조르주 루오 작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루카 5,10).

※이번 주일 복음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직접 필사해보세요.

교회분열 ①

비 신 자 : 개신교가 어떻게 갈라져 나가게 되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데요.

천주교인 :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이라고 정당화하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전혀 개혁이 아니에요. 무엇을 개혁하겠다는 것이었을까요?

비 신 자 : 교회 내의 기율이 헤이해진 것에 대한 개혁이 아닐까요?

천주교인 : 당시 유행하던 인문주의 영향으로 세속적인 요소들이 끼어들긴 하였지만, 개혁을 외친 이들이 진정 교회의 기율을 개혁하려고 했었는가는 의문이에요.

비 신 자 : 교회 내 세속화가 문제라면 세속화를 벗어나는 것이 개혁이었겠네요.

천주교인 : 그렇지요. 특히 북유럽 일대에 거듭 악폐가 쌓였다고 해요. 고위성직자 선정에 있어서 권력이다 보니 직접 간접으로 속권의 간섭이 있어서 부적격자도 당연히 생겨났지요. 성직의 엄숙성이 손상되는 사례들도 있었고, 빈부의 격차가 심하게 생겨나기도 했어요. 이런 여파가 성청까지 미치기도 하였어요. 당시까지는 성직자가 결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여러 문제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이런 것들만 개혁하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자신들도 그렇게 개혁가답게 살았으면 그들의 진정성을 알아주었을 거예요.

비 신 자 : 이런 사태에 천주교에서는 어떤 개혁적인 조치가 있었나요?

천주교인 : 좀 늦긴 했지만 트리엔트 공의회를 열어 세속화의 요소들을 가능한대로 정리했어요. 특히 성직자들의 독신을 교회법으로 의무화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천주교 성직자들은 의무적으로 독신생활을 하는데, 반면에 개신교에는 그런 의무가 없지요.

비 신 자 : 그러면 개혁자라는 이들은 개혁가답게 살았나요?

천주교인 :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루터는 일생을 독신으로 지낼 동정 서원을 한 가톨릭의 수사 신부였어요. 그런데 42세 나이로 하느님께 드린 정결서원을 깨뜨리고 26세의 젊은 수녀인 가타리나 폰 보라와 결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루터와 동지였던 에라스무스까지 이것을 조롱했어요.

비 신 자 : 하느님께 바친 동정 서원을 파기했군요. 다른 것은 또 없나요?

천주교인 : 수도자는 3대 서원을 해요. 청빈, 정결, 순명이지요. 루터는 또 로마교황의 교서를 대중들 앞에서 불사르는 반역을 저지르지요. 반평생을 장상으로 섬기던 분을 대한 극도의 모욕을 개혁자로 자처하는 그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순명 서원에 대한 파기예요.

비 신 자 : 불가능한 이혼과 재혼을 허락해 주기도 했던데요.

천주교인 : 루터는 정치가의 보호가 아니었으면 당시로서는 살 수 없었지요. 자기를 보호해 주던 헤센의 백작 필립의 이혼을 허락해 준 겁니다. 필립은 일곱 남매를 낳아준 조강지처를 버리고, 열일곱 살 난 처녀와 결혼할 것을 마음먹고 루터와 멜란히톤에게 승낙을 요구합니다. 필립의 후원이 절대로 필요했던 그들은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비밀 조건으로 허락해 줍니다. 그러나 필립은 드러내놓고 목사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립니다. 교황이 헨리8세의 이혼을 허락하지 않아서 영국 국교인 성공회가 갈라진 사실을 상기해 보세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 교회 기율을 개혁하기는커녕 자신들의 교파에도 기율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율에 있어서 본인들이 개혁 대상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사랑을 모르고 산 죄

정은오 요안나 / 시인 · 수필가, 교구 가톨릭문인회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이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추위에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할아버지를 만났다. 체구가 자그마한 분이 남루한 얇디얇은 면바지와 남방 위에 걸친 잠바가 고작이었다. 엄동설한에 지난밤 내린 눈바람까지 살을 에는 짱 추위가 노구를 덮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고 가엾다. 가까이 다가가 “할아버지! 할아버지!”하고 불러도 귀에 들리지 않는 듯 반응 없이 떨기만 하였다. 그냥 두면 위험할 듯하여 인근 파출소에라도 모셔다 드리려고 차에 태우려고 시도를 해 보았지만, 웬일인지 없는 힘에도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분을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어디 가지지 말고 잠깐만 여기서 기다리세요! 금방 올게요!” 소리치고 집으로 달려가 급히 우유를 뜨겁게 데워 미숫가루를 탔다. 마시기 좋은 죽처럼 되었다. 겨울이 되면서 옷 정리를 해서 보자기에 싸놓은 길이가 긴 오리털 코트와 스웨터 등 몇 가지 겨울옷을 싸 들고 정류장으로 갔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떨고 계셨다. 급하게 경량 다운패딩을 입혀 드리고 그 위에 검정색 롱코트를 입혀 드렸다. 이웃의 딱 맞는 임자가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다. 김이 나는 죽을 한 컵 드렸다. 할아버지는 손이 떨려 제대로 입으로 가져가지 못해서 입에 갖다 대마시게 해드렸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진정이 된 할아버지가 고맙다고 들릴 듯 말 듯 인사를 했다. 집이 어디냐고 물으니, 조금만 가면 된단다. 차비가 있으시냐고 물

으니 덜덜 떨리는 손에 꼭 쥔 교통카드를 내보였다. 파출소에라도 모셔다드리든지 아니면 내 차로 집까지 태워다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극구 사양이다. 나는 근무 중이라 그리 시간이 많지 않아 그러면 조심해서 가시라고 인사를 드리고 덕분에 점심을 굶은 채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 할아버지가 생각났다. 이 겨울을 어떻게 나고 계시는지 누운 방에 온기라도 들어오는지 걱정스럽다. 무리해서라도 할아버지 집을 알아놓았어야 했는데 후회막급이다.

하느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다. “인간아,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느님 나라로 갈 때 가지고 갈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 세상의 것에 아등바등 매달려 내 것을 챙기다가 그 돈 한 잎지니고 갈 건가? 허망하여라 산다는 일이... 그날 이후, 집에 있는 겨울옷들을 챙겨서 차에 싣고 다닌다. 누구든 추운 사람을 보면 나눠주려고.

사랑을 모르고 산 죄! 내 이웃의 추위와 배고픔을, 고통을 외면한 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사는 죄! 죄 때문에 더욱 추운 겨울이 어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북방선교기금 위한 2차 헌금(2월 9일)

청주교구는 지난 1998년 교구설립 40주년을 맞아 하루 100원을 절약, 월 1회 3천 원을 봉헌하여 교구 사회 복지 기금과 북방선교 및 북한동포를 돕는 목적으로 3000운동을 실시해왔습니다. 사제평의회에서는 3000 운동은 끝내고 이 운동의 취지와 나눔정신을 지속하기 위해 메리놀회를 위한 기도의 날이며 초대 교구장이신 파야고보 주교님 기일인 2월 16일 전 주일인 2월 9일(연중 제5주일) 북방선교기금을 위한 2차 헌금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교구 사무처 공문 2025-9호/2025년 1월 22일자 참조〉

교구 여성 제92차 · 남성 제90차 꾸르실료 교육

교구 꾸르실료(지도 _ 장병철 바오로 신부)는 1월 9일(목)~12일(주일)까지 여성 제92차 꾸르실료를, 1월 16일(목)~19일(주일)까지 남성 제90차 꾸르실료를 실시하였다. 교구 연수원에서 진행된 이번 남녀 꾸르실료 교육에서 여성은 50개 본당 80명이, 남성은 24개 본당 35명이 수료하였다. 한편 꾸르실료 사무국은 오는 2월 15일(토) 오전 10시부터 초중성당에서 이번 꾸르실료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감사 미사 및 재모임을 실시한다. 참석자들은 미사도구 외 길잡이, 타이슬링, 텀블러 등을 지참해야 한다.

〈사진 제공 _ 꾸르실료 사무국〉



여성 제92차 꾸르실료



남성 제90차 꾸르실료

삼승 본당 장학금 및 간식 전달

삼승 본당(주임 _ 박치영 안드레아 신부)은 지역과 함께 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2020년부터 판동초등학교에 매년 장학금을 전달하며, 매년 2회 부활과 성탄 대축일 때 지역 관공소인 구병산 119센터, 삼승·마로지 구대 등에 간식을 제공한다. 이에 판동초등학교에서 삼승 본당 주임 신부를 졸업식에 초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구병산 119센터에서도 매년 보내주는 간식에 대해 본당에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다.

〈사진 제공 _ 삼승 본당 사무실〉



장학금을 수여하는 박치영 안드레아 신부



구병산 119센터 대원들

교구장 동정

■ 사제평의회

일시 _ 2월 11일(화) 오전 10시
장소 _ 교구청

■ 마산교구장 이성효 주교 착좌식

일시 _ 2월 12일(수) 오후 2시
장소 _ 창원 컨벤션센터 1전시장

■ 평협·공소회장단·제단체장 연수 파견미사

일시 _ 2월 15일(토) 오후 3시
장소 _ 내덕동 주교좌 성당

교구청

건축위원회

일시 _ 2.11.화.13:30
장소 _ 교구청

제32기 교리신학원

수업연한 _ 매주 목.09:10~16:00(1년과정)
장소 _ 교구 연수원
인원 _ 선착순 40명(본당별 최대 5인)
등록금 _ 35만원(본인부담 20만원/식비별도)
문의 _ 210-1732 선교사목국

제39차 창세기연수

일시 _ 2.28.금-3.3.월
장소 _ 교구 연수원 ※다음카페 '한처음' 참조
대상 _ 창세기 그룹수료자, 7과이상 진행자
문의 _ 2.14.금까지 220-1707

제21기 또래사도 입단 준비과정

일시 _ 2.15.토-16.주일
장소 _ 교구 연수원

성소자 입학 및 개학미사

일시 _ 2.16.주일.13:30
장소 _ 내덕동 주교좌 성당
※양업회(신학생부모모임) 함께 있음

본당 가정성화·생명부장 피정

일시 _ 2.22.토.13:00~17:30
장소 _ 교구청
내용 _ ①최양업 신부님의 삶과 영성
②피정 구성 및 진행 방법 설명
접수 _ 2.12까지 210-1737 가정사목국

2025년 가톨릭평생교육대학

(구, 청주어르신대학) 어르신 모집

대상 _ 65세 이상 선착순 55명(신규 우선)
개강 _ 3.4.화/매주 화.14:00~16:00
장소 _ 가톨릭청소년센터
수강료 _ 연 6만원(간식비 6만원 별도)
프로그램 _ 신앙, 교양, 건강관리, 현장학습 등
문의 _ 210-1733 가정사목국

미사·피정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묵주기도피정

일시 _ 2.10.월.09:00~12:30
장소 _ 서운동 성당

군중후원회 미사

일시 _ 2.10.월.10:00
장소 _ 내덕동 주교좌 성당

성소를 위한 미사

일시 _ 2.10.월.10:30
장소 _ 가톨릭청소년센터

청년성서모임 한처음 월미사

일시 _ 2.11.화.20:00
장소 _ 가톨릭청소년센터



봉암성지 철야기도회

일시 _ 2.14.금.19:00~15.토.02:00
장소 _ 맹동 성당
문의 _ 883-0161, 010-5215-8607

ME 주말

일시 _ 2.14.금-16.주일
장소 _ 엠마우스 피정의 집

생명수호미사(태아와 임신부 축복식)

일시 _ 2.17.월.19:30(19:00 묵주기도)
장소 _ 사천동 성당
주례 _ 민상천 대건안드레아 신부

성령쇄신봉사회 찬양치유평정

일시 _ 2.22.토.14:00~23.주일.14:00
장소 _ 초정 성령회관
강사 _ 마진우 요셉 신부, 김완식 요셉
문의 _ 213-9103 ※고영민 안드레아 진행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피정

일시 _ 3.1-3, 3.8-10, 3.18-20
3.29-31, 4.1-3, 4.10-12
추차도 포함 _ 3.13-16, 3.23-26, 4.5-8
운영 _ 성 이시돌 피정의 집
내용 _ 성 이시돌 목장내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피정
접수 _ 064-796-4182, 02-773-1455

가정성화를 위한 꽃동네 성령피정

일시 _ 3.15.토.11:00~16.주일.16:00
장소 _ 음성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대상 _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분
회비 _ 8만원 ※사전접수자만 피정 가능
문의 _ 010-5490-5345

충주 오라클 피부과

여드름, 모공, 흉터, 색소, 기미, 잡티
일반피부질환, 건선, 백반증(엑시머)

피부과 전문의 윤정현(투카) | 845-6640~1
충주시 계명대로 28, 6·7층(칠곡동)

경인구 한의원

공진단 / 경옥고 / 보약 / 척추관절 / 비만 / 성장
척약 의료보험(오창 국민은행건물 4F)

원장 경인구 토마스아퀴나스 | 241-0007

충주 성모요양병원

사랑과 정성이 가득한 요양병원
(양성 온천역KTX 앞)

김동국 베네딕토 | 844-2000

민 안과 의원

라식 · 라섹수술, 20년, 길원장라섹
백내장, 쌍꺼풀, 특화수술 · 각종특수검사

원장 김병석(베드로) | 222-8080
원장 김소연(데레사) | 지하상가 중간 신호등 북쪽

모정 방문요양센터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들 방문케어 전문기관
등급신청 대행, 요양보호사 파견, 가족요양

대표 지향옥 리드비나 | 010-8593-3779
네이버 검색 : 모정재가

청주탑엔도내과

당뇨, 골다공증, 갑상선 질환, 고지혈증, 고혈압, 내분비질환
당일 검사 및 진료 가능/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구생빌딩 5층)

고선희 미카엘라
홍의실 로 사 | 715-7572

베론성지 기도학교 기획피정

3.14.금-16.주일/서상범 주교(군중)
4.17.목-20.주일/성주간피정(기도학교)
5.16.금-18.주일/전헌호 신부(대구)
6.20.금-22.주일/정남진 신부(원주)
문의 _ 651-4563 기도학교 사무실

교육·모집

청주성모병원 시설관리팀 직원모집

분야 _ 소방안전관리자
기계설비책임유지관리자
문의 _ 219-8810 총무팀 인사담당자
※자격요건 www.cdcj.or.kr 모집게시판 참고

가경자 최양업 신부와 함께 하는

제38차 양업순례단 성지순례

일시 _ 3.8.토.08:30 교구청 출발
순례지 _ 은이성지, 골배마실, 미리내성지
회비 _ 7만원 ※선착순 80명
문의 _ 010-2749-9387 ※차기진 박사 해설

교구 가브리엘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_ 교구장 집전 미사, 매주 월 저녁
연습이 가능한 교구 신자
오디션 _ 3.10.월.19:00(자유곡1, 음역테스트)
내덕동 성당 내 성음악원 연습실
마감 _ 3.9.주일까지 문자접수
문의 _ 010-8841-5556

내적치유, 영적돌봄을 위한 C.P.E 교육

일시 _ 2.15-5.20(평일반 또는 토요일반)
문의 _ 010-8863-3637 대전 섭리C.P.E센터

참자아로 깨어나기 청소년팀(예비 초6-중2)

일시 _ 2.22.토.10:00-18:00
2.23.주일.10:00-17:00
내용 _ 참다운 자신으로 깨어나 빛으로 살아가기
강사 _ 김영근 바오로 신부(예수회)
문의 _ 010-5564-4287

예수회센터 복합기 비대면 강좌(3월 개강)

비대면 실시간 동영상(ZOOM, 구글미트) 강좌
영성과 철학상당: 아픈 영혼을 철학으로 치유하기
매주 화.19:00-21:00(12주 과정)
하늘씨앗 깨어나기(영성수련)
화/목/금.19:30-22:00(13주 과정)
금요일반은 20-30대 청년대상
접수 _ 02-3276-7733, center.jesuit.kr

안내·기타

성직자·수도자·평신도 고해성사

일시 _ 매주 월.14:00-16:00(5주 제외)
장소 _ 내덕동 주교좌 성당

교구 평협 월례회의

일시 _ 2.13.목.19:00
장소 _ 가톨릭청소년센터

본당 평협회장단·단체장, 공소회장단 연수 및

제48회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총회

일시 _ 2.15.토.09:30-16:30
장소 _ 내덕동 주교좌 성당
문의 _ 210-1730, 010-6430-7925

재속프란치스코회 청주루도비코형제회

일시 _ 2.15.토.13:30
장소 _ 내덕동 주교좌 성당

행복운전사 정기총회

일시 _ 2.15.토.14:00
장소 _ 교구청

재속프란치스코회 진천보나벤뚜라형제회

일시 _ 2.16.주일.13:00
장소 _ 진천 성당

재속프란치스코회 청주안나형제회

일시 _ 2.16.주일.15:00
장소 _ 수동 성당

2월 가족이 함께 드리는 기도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교구 홈페이지
'가정기도' 게시판 열람가능



선종사제를 위한 기도를 청합니다.

초대 교구장 故 파지 야고보 주교

메리놀외방전교회 (선종일 _ 1983년 2월 16일)



청주주보 광고란 이용을 원하는 업체는 교구청 전산홍보실(☎210-17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뒷목문화사 Tel : 273-5000~2, E-mail : dewmok@naver.com 인쇄·출판·광고·성경필사용지 제작·판매

수도회 성소모임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의
천주의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2.15.토.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미카엘여행사 성지순례 모집

4/22 다낭 5일, 5/25 그리스.튀르키예 12일
4/1, 4/15 제주도, 4/8 대전, 5/12 춘천원주
정상훈 미카엘
www.michaeltour.co.kr | **010-8650-9690**

증평 현대 장례식장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환영, 신자 특별 우대
증평성요셉공원묘지관리위원장 김영태
김영태 프란치스코 박태수 요셉 | **010-5465-2964**
| **010-4350-5713**

베트남 북부 성지순례

하노이, 닌빈, 하롱베이, 6월 9일(월)-13일(금)
아시아나항공(인천공항 출발)/150만원
박경동 마리오 마 샘동행 | **010-9427-1119**

라파엘 해외성지순례안내

4/21 특선 이탈리아 11일 499만원(대한항공)
4/28 튀르키예,그리스 12일 439만원
대표 유재구 요한 | **02-778-8565**
www.clubraphael.co.kr

참조은 정형외과 의원

관절, 척추, 통증, 척추교정재활크리닉
도수, 체외충격파 치료 및 물리치료
소창성 비오 권현숙 비아 | **213-0080~1**
(fax 213-0016)

흙표 흙침대(청주점)

일상을 바꾸는 아트 퍼니처!
흙표흙침대와 함께~ (전속모델 : 장윤정)
김영석 프란치스코 | **273-4733**
청주시 서원구 사운로 5(모충동)